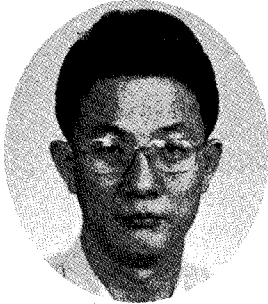


## 53만 가구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낙농육우협회



손근남

천하 제일사료 축우팀장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산업체와 공존하면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협조하는 전국 생산자연합단체, 낙농육우 관련산업인 사료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사오년간 협회의 활동을 근원간에 지켜보면서 평소 느껴온 점 몇가지를 낙농육우산업과 그 주변관련산업이 건전한 공존공영의 틀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가기 위하여 감히 몇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동안의 업계의 변화의 큰 흐름은 세계화 시대, 지방화 시대, 소비자 중심의 시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요건입니다.

첫번째로는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에 축산선진국의 낙농육우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경쟁

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은 물론이고 필요한 대내외 정보를 관련 낙농육우산업인이 공유하는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생산자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관련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마인드 조성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두번째는 지방화 시대의 부응입니다. 우유와 소고기를 소비자의 입 가까이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지방화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협회가 주축이 되어 논의되어온 낙농진흥법의 시행은 시급중차대한 일입니다. 육우전문점 육성이나 송아지고기의 상품화를 관련업계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여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협회의 가교 역할을 기대합니다.

세번째는 소비자의 위생안정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제입니다.

그 동안 사료와 약품 종자와 기자재의 소비고객으로서 생산자는 우유와 고기의 최종소비자를 목장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고객으로 받아들여야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활동과 아울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광고와 홍보도 생산자 단체인 협회의 몫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낙농육우협회가 생산자의 권익과 생존을 지키는 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생산자의 주머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단체가 정치자금을 대주는 기업과 단체를 위한 로비단체로서 일할 수밖에 없듯이 자본주의경제에서는 돈이 지배하는 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슈퍼마켓에서 수입혼합분유를 원료로 가공한 생규칼슘알과가 국산원유로 만든 생규4.3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소비자인 아이들이 전자가 더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란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야만 시유 시장을 지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와는 달리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광고와 홍보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확보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53만 낙농육우산업을 영위하는 생산자입니다. 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